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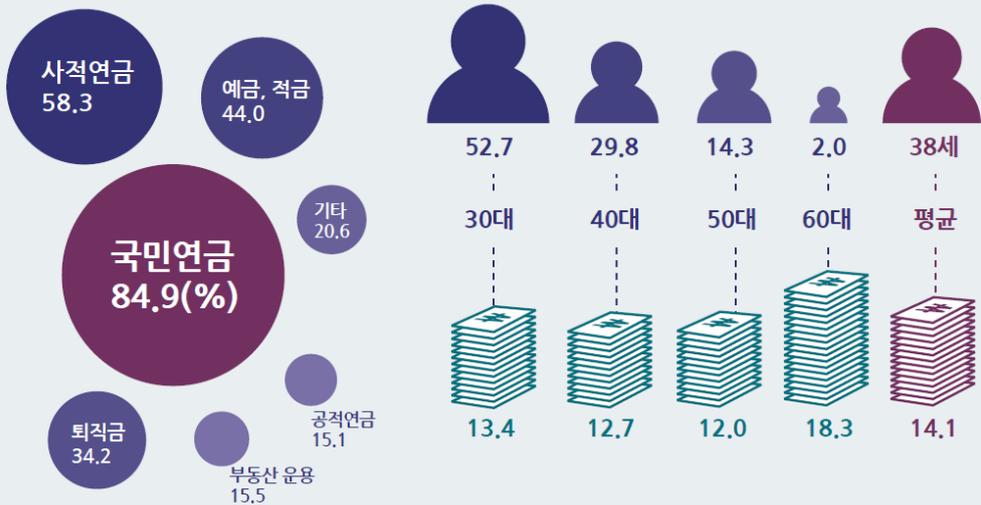
2012년 서울시민들의 노후준비

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

2012년 서울시민들의 노후준비

서울시민 노후준비 수단으로
84.9% 국민연금 활용
(중복응답)

38세부터 노후를 준비하며
수입의 14.1% 노후준비에 투자
(단위 : %)



* 서울연구원에서 서울시 1,010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 중 "노후준비 중" 인 응답자 대상으로 구성

* 자료: 서울연구원 서울경제연구센터

서울시민 노후준비 수단으로 84.9% 국민연금 활용 38세부터 노후를 준비하며 수입의 14.1% 노후준비에 투자

- 서울시민 주요 노후준비 수단으로 84.9% 국민연금(중복응답)
 - 서울의 1,010 가구 중 「노후준비 중」인 가구는 72.2%, 「노후준비를 하고 있지 않음」인 가구는 19.7%, 「준비된 노후자금 활용 중」인 가구는 7.6%로 조사
 - 현재 「노후준비 중」이라고 응답한 가구의 다수는 국민연금(84.9%)을 주요 준비 수단으로 활용. 그 외 수단으로 사적연금(58.3%), 예적금(44%), 퇴직금(34.2%), 기타(20.6%), 부동산 운용(15.5%) 순

- 노후준비는 평균 38세부터 시작
 - 30대부터 노후를 준비한 가구는 52.7%, 40대 29.8%, 그 외 50대 14.3%, 60대 2.0% 순으로 나타나 평균 38세부터 노후준비 시작
 -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노후준비 시작 시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조사. 특히 2,000만원 이하, 2,001~3,000만원 이하의 소득계층은 평균 나이가 각각 44세, 40세부터 시작

- 평균적으로 수입의 14.1% 노후준비에 투자
 - 연령별 노후자금 투자 비율은 30대 13.4%, 40대 12.7%, 50대 12% 순으로 전반적으로 월평균 소득의 14.1%를 투자하는 것으로 조사
 - 60대의 경우 월평균 소득의 18.3%를 노후자금으로 투자한다고 응답하였으나 60대 중 「노후준비 중」인 소수(2.0%)의 응답으로 일부 계층의 한정된 현상으로 판단

본 인포그래픽스는 서울연구원에서 조사한 “서울시민 노후준비 설문조사” 중 「노후준비 중」인 응답자 대상으로 구성

- 조사기간: 2012년 7월~8월
- 조사가구: 서울 1,010가구
- 조사방법: 전화 설문
- 조사내용: 노후준비 유무, 노후준비 수단, 소득대비 노후 자금 투자 비중, 적정 노후자금, 예상 노후자금, 노후준비 시작연령, 노후준비 적정연령, 예상 경제활동 수명, 노후 거주지 계획